

## ◆ 부산물 활용으로 사료비 절감 및 천연생리활성물질 자원화 필요

- 우리나라 사료원료의 95% 이상을 수입에 의존
- 국내 농산부산물 발생 추정량 : 약 6,265천톤/년

## ● 핵심성과

- 유용물질 함유 부산물 선별 및 사료화 : 5종
  - 부산물 유래 유용물질 추출 : 포도씨(프로시아니딘), 감귤박(헤스페리딘)
    - 돼지 사료요구율 12% 개선, 항산화 활성효과(Vit.C 유사)
  - 면역증진용 부산물 3종 : 홍삼박, 매실박, 구멍갈파래
    - 산란계 : 산란율 증대(홍삼박 6% ↑), 사료섭취량 개선(매실박 3% ↑)
    - 육 계 : 구멍갈파래 과잉면역반응(cytokine, IgM) 억제

## ● 실용화(산업화)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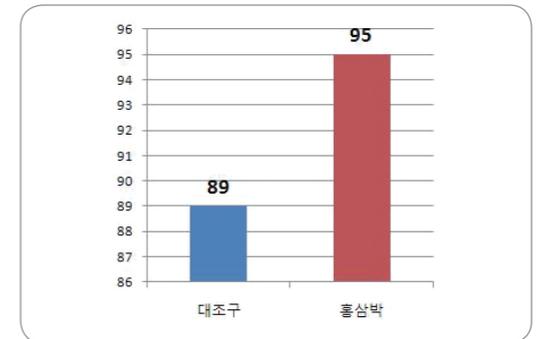
- 버섯부산물 영양가치 평가 및 최대 활용 기술 개발
  - 느타리버섯용 톱밥대체 배지 개발 : 폐배지 리그닌 함량 감소(21% ↓)
  - 팽이버섯부산물 펠릿 가공시 최적 조건 설정 : 결합제 1%, 소맥 5%

## ● 기대효과

- 유용물질 함유 부산물 : 프로시아니딘(양돈사료비 4,335원/두 절감), 매실박(산란계사료비 66원/수 절감), 홍삼박(계란수익 185원/개 증가)
- 느타리버섯부산물 : 55백만원 수익 증가(1만병 규모농가 기준)



〈유용물질 제형화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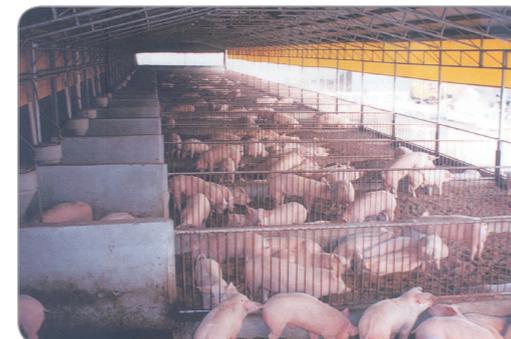
〈홍삼박 산란율 증대〉



〈팽이버섯부산물〉



〈버섯부산물 펠릿화〉



〈농산부산물의 돼지 급여〉



〈농산부산물의 양계 급여〉

□ 담당자 : 박준철, 031-290-1643, pjc0319@korea.kr